「매스콤」에 반영된 看護半世紀

代의 發達에 따라 우리나라 看護界도 日進月步로 발전하고 있다。현재 그 育成만 하더라도 二개의 단과대학과 八개의 간호학과에서 매년 三천명의 정규면허간호원을 배출하기에 이르렀고 정규간호원 면허소지자는 一만 五천여명, 거기에 看護員補助가 약 一만 六천명으로 되어있어 실로 隔世의 感을 갖게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經濟成長과 이에 따르는 保健醫療事業擴大의 템포에 看護員供給은 아직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이것을 國際的 比較에서 보면 人口 一萬名에 대한 看護員數는 美國의 四七・八명, 「덴마크」의 四一・七명, 瑞典의 三一・九명, 日本의 二八・三명에 대해 韓國은 一〇명이 제되지 못하여 장래에 대비하는 對策이 있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外國에 있어서의 韓國看護員의 수요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현재 西獨 美國 「카나다」등에서 一천여명이 활약하고 있다。이것이 앞으로도 더 늘 것을 생각하면 保社部를 비롯한 關係機關에 看護員養成事業의 增强, 그 質의 向上, 待遇改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망하고 싶다。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看護員은 醫療補助와 더불어 간호업무의 責任者라는 중대한 機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現實로는 그 大部分이 醫師의 助手的인 位置로서밖에 부여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患者, 특히 入院患者의 경우 基準看護의 실시로 많은 병원에서는 전만은 금지되고 있어 간호원에 대한 患者의 期待는 크다。

그러나 實情은 過勞, 손不足등 간호원에 同情하여 正當한 서비스 要求이면서도 사양하는 케이스가 적지않다。患者의 입장에서의 看護機能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그러나 配慮는 一面에 있어서 看護員이라는 職業을 助手的이라는 입장에서 解放하여 보다 보람있는 것으로 改善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看護員에 있어서 「白衣의 天使」라는 이미지는 희박해졌지만 그대신 現代的 性格과 使命이 부여되지 않으면 안된다。그러기 위해서는 看護員 자신들의 自覺도 필요하지만 關係當局의 施策은 물론, 일반의 看護事業에 대한 인식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이밖에도 西獨, 「아프리카」, 日本, 「캐너더」, 英州等地에 遊學, 우리 간호원들의 훌륭한 技倆과 품성을 높이 發揚하여 그곳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이같은 모든 活動은 博愛主義精神을 기틀로해서 發揮된 것이다。돌이켜 볼때 지금까지 간호사업에 종사한 간호원들은 高貴한 使命感으로 봉사생활을 해왔으나 간호원의 사회적 地位는 뒤떨어져 아직도 日帝잔재인 「看護婦」의 대접을 받는 정도이고 獨自的 활동을 못하는 형편이라 하겠다。

現代는 모든 活動이 專門化되고있다。醫療業에도 分野別로 專門化되어 分業的形態가 이뤄지는 課程이다。여기 발맞춰서 간호원들도 自己의 使命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適應할 수 있는 專門知識을 解得해야하고 날로 進步하는 醫療界의 새로운 知識과 技術등을 익혀 資質向上을 圖謀해야 한다。外國에서는 간호원이 담당하는 醫療분야는 광범하고 고도로 전문화 돼있다。지금 醫學의 國際交流가 빈번한 이時點에서는 뒤래나 감고 注射를 놓고 熱이나 재는 고식적 간호방법은 時代에 뒤졌다할 것이다。患者를 위한 看護員들의 숭고한 使命을 완수하고 그들의 地位를 높이려면 專門分野뿐 아니라 一般敎養에 이르기까지 공부하는 看護員이 되어야 할 것이다。새時代가 바라는 看護員像을 浮刻시키려면 우선 解決해야할 基本的問題는 그들에 대한 敎育過程의 改善이 再檢討되어야 할것이다。敎育의 뒷받침없이는 有能한 看護員을 養成하기 어렵다。간호원敎育의 水準과 權威를 높이도록 해야한다。

지금 항간에는 看護員敎育機關의 「先認可 後施設」이라는 해괴한 말이 떠돌고 있다。行政當局으로서 애로사항은 있겠으나 認可基準을 엄격히 다뤄서 看護敎育의 制度面에서의 改善을 꾀하도록 해야하겠다。예컨대 中學校와 高等學校卒業者의 入試銓衡基準을 따로 세우고 入學과 卒業한뒤 그들이 取得하는 免許에도 區別이 있어야 할 것이다。

正規「코스」의 看護員이란 專門敎育過程을 밟기위해서 高等學校를 나와 三年制看護學校를 卒業하여야만 한다。看護學校 二년이라면 初級大學보다 一년이 더 많지만 사회적으로는 中學校졸업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간호원 養成所출신자와 같은 인정밖에 받지못하고 있다。

이러한 矛盾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行政的 손질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이렇듯 대접받지 못하는 看護員像에 幻滅을 느꼈음인지 작금에는 正規간호학교를 나오고서도 家庭에 되돌아가거나 資格을 높이 인정받는 海外進出의 機會만을 노리는 實情이라고 한다。

看護協會 창립五〇주년을 맞는 뜻깊은 이機會에 看護員 本然의 正務를 되찾게하려면 看護敎育부터 근본적으로 再檢討돼야할 것으로 본다。

〈4월 17일字 경향신문「社說」〉

看護50年史와 오늘의 課題

大韓看護協會가 一七일 창립 五〇주년을 맞았다。 이땅에 最初의 韓國人看護員이 탄생한 것은 一九一〇년 세크란스病院의 美國人看護員「쉴즈」가 세운 「看護婦養成所」에서 배출된 金배세이며 또 그보다 一二〇년을 거슬러 올라 一八九一년의 美國聖公會 宣敎部看護婦業務의 한국에 온 「히드리크」를 始祖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뿐 우리가 호국의 수호가 늘어남에 따라 一九二三년 四월 一七일 비로소 「朝鮮看護婦協會」가 창설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날은 우리나라 看護員조직이 本格化하게 된 날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五〇周年을 맞이하여 功勞者표창을 비롯하여 갖가지 기념행사를 벌이는데 此際에 이나마 「看護半世紀」의 발자취를 되새겨보고 오늘날 우리나라 看護界가 안고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것도 결코 無益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看護婦」라고 하면 「白衣의 天使」라는 代名詞 그대로 원래가 사람의 목숨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그 草創기가 말해주듯 基督敎의 傳來와 거불어 들어온데서 더욱 宗敎的인 의미를 띄게하고 있는 것이 그 特徵이라 할 수 있다。

그이래 보면 우리나라 看護半世紀는 民族의 哀歡과 더불어 休戚을 같이 하였다。 멀리는 六만명의 사망자를 낸 一八九五년의 콜레라病때를 비롯하여 數次의 大病厄時의 활약은 더 말할것 없고 三·一運動時 日本警察의 눈을 피해가면서 負傷한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看護活動은 그대로 愛國운동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 중에도 특기할 것은 六·二五戰爭時에 있어서의 看護員의 活躍相이다。 약 三천 七백명으로 추산되는 많은 간호원은 그야말로 「白衣의 天使」 그대로 砲煙彈雨를 무릅쓰고 負傷兵의 간호는 물론 難民救護에 까지 분부신 활동을 한 것이다。 그 活躍相이 얼마나 눈부셨던가는 二백명이 넘는 戰死者, 被拉者를 냈다는 것이 잘 말해주고 있거니와, 한편 이 戰亂을 통하여 看護事業이 얼마나 重要한 것인가를 體得하게 된 것도 큰 敎訓이었던 것이다。 時

〈4월 19일字 한국일보「社說」〉

사랑과 奉仕로 半世紀

—白衣의 天使들이 지닌 使命은 崇高하다—

大韓看護協會가 지난 一七일 創立五〇주년을 맞았다。 간호사업은 한때 기독교적 博愛主義에 신봉하여 病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救濟하기 위하여 몸바쳐주는 精神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간호 半世紀는 民族的 哀歡과 같이한 苦難의 歷史였다。

淸·日戰爭직후 우리나라에 창궐했던 「콜레라」는 六萬餘名의 生命을 앗아갔다。 傳染病인 「콜레라」患者를 돌봐주기위해서 간호원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그 무렵 一九〇七년 韓國軍隊의 解散令과 더불어 이에 抗拒한 軍人들이 負傷을 입었을때 간호원들은 獻身的으로 奉仕했다。 一九二五년 大洪水로 인한 難民救護事業에 이르기까지 간호원들의 공사활동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는 모두 高貴한 人間愛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근래에 와서는 六·二五動亂으로 祖國의 戰亂에 휩쓸렸을때 國軍을 도와 勇敢하게 前方에서 負傷兵을 거두었으며 그 많은 戰災피난민들속에 들어가 간호사업을 展開했다。 越南派兵時는 看護將校 또는 의료봉사대원으로 出陣, 異域萬里 異國戰線에서 戰傷兵의 간호와 現地民들을 위한 의료 事業에 참여하여 國威를 宣揚했

本誌는 특별히 본회의 이 뜻깊음을 길이 찬양하고 격려해준 경향신문 社說(4월 17일字) 및 한국일보 社說(4월 19일字)을 그대로 轉載하여 회원에게 널리 알리고 길이 보존코자 한다.

京鄉新聞
겨레의 어머니
한국看護50年史
半世紀맞는白衣모임
朝鮮看護婦會로
한국일보
中央日報
醫協新報
朝鮮日報
醫師新聞
東亞日報
厚生日報
不安한 就
8千여명就業·4千명海外진출